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미국 뉴욕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 법문

대구 동화사 ·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9월 15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봉행한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행사가 열린 뉴욕 리버사이드교회는 정치적 토론 장소로 유명하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피델 카스트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연설했던 곳으로 달라이라마 법문이 열리기도 했다. 진제 스님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의 법문은 한국 스님으로는 최초이다.

특히, 법문에 앞서 이 교회 목사는 직접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이 '참나'를 깨치기 위한 수행방편이라는 점과 참선수행의 효과, 간화선 수행법을 위한 마음가짐 등을 법문해 현지인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스님의 법문에는 뉴욕 현지의 이웃종교인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이다.

글=조종섭 기자, 사진=박기범 기자

[상당하시어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마음, 마음, 마음이어! 가히 찾기가 어려움이로다. 찾으려 한즉은 그대가 가히 보지 못함이로다. 무심(無心)히 앉아있으니 마음도 무심히 앉아 있음이로다.

[주장자를 바로 들어 보이시면서]

대중은 보고, 보십시오.

이곳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득 자리한 선남선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 종교지도자 여러분들과, 산승이 자유의 땅 미국에서 진리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이처럼 훌륭한 법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과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승은 세계 평화를 위해 동양정신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온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계는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서로가 마음을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내면 세계의 평화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 우애로운 형제가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산승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조율하여 '참나'를 깨달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참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礙自在)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 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나를 깨달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다 같이 영원토록 대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참나를 깨달은 눈빛은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 빛은 스승을 만나 대오견성의 발원을 확고히 하여 모든 분들이 각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선으로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어 일월(日月)과 같은 밝은 지혜가 열리는 동시에 큰 자비와 사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온 세계, 유정무정(有情無情)이 모두 나와 더불어 한 집이 되어 대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니, 온 인류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처럼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밝은 지혜의 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눈을 2m 아래에다 화두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리억어지고 나면, 일상생활 속에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꼭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하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촌에 방아 찰는 기계는 시동이 안 걸리면 방아를 못 찰는데,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종일 방아를 찰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천번 만번 의심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천번 만번 의심하여 단련이 되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 걸리게 되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이 오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흐르고 흐르게 되는데,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화두일념에 꼭 빠져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참나에 소리를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석가어래부촉법 제79법손으로 정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에 추서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이며, 해운정사 금오선원 ·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 조계종 기보선원 조실이다. 법어집으로는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 <둘사람 크게 웃네> <선 백문백답> <석인은 물을 건고 목녀는 꽃을 따네> 등이 있다.

하루에도 천번이고 만번 화두 들어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
한번 제대로 시동걸리면 종일 화두 가능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어 억만년이 다하도 록 항상 밝아 있게 되므로, 만인의 진리의 지도자,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사표(師表)가 되어 자유자재하게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멋진 자유와 행복과 세계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묘인 모든 여러번, 참나 속에 변치 않는 정의가 있으며, 참나 속에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참나 속에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으며, 참나 속에 모두가 평등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행복과 대자유와 평등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와 명성이 높고 성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 화두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생활 속에 꾸준히 참선수행을 닦아 행한다면 마음에 모든 분별과 시비, 갈등이 사라져 자연히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

다. 죽음에 다다라서도 맑은 마음 밝은 정신으로 이 몸통이를 웃을 갈아입듯 벗겨 되고 다음 생애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선수행을 등한시 한다면, 온갖 분별과 시비, 갈등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고통뿐이고 고통뿐이어서 죽음에 다다라 후회할들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간화선이라는 훌륭한 수행법을 꾸준히 닦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울면 자장가를 하는 가운데 화두를 챙기시고, 남편이 꾸짖을 적에도 화두를 챙기시고, 마누라가 시비를 걸 때는 처사가 화두를 들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 화목한 집안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화목한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마침내 세계평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드리고자, 산승이 참선수행에 입문하고 수행하여 깨달은 기연을 소개합니다.

산승이 20세가 되던 정월 초에 해관암을 찾아가 석우 선사를 친견했습니다. 선사가 산승을 보고는 "이보게 청년,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중놈이를 해 보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놈이를 하면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법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법부 중생이 위대한 부처가 된다"는 이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허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스님들 생활을 두루 살펴보니, 세상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손수 빨래하고, 밥 짓고, 나무하고, 그 가운데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 밖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인지 산승의 눈에는 수도하는 청정한 삶이 아주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법부가 위대한 부처된다"는 선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허락을 얻어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승려가 되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화두를 받아 열심히 정진하던 중 견처(見處)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선지식으로 가장 이름이 높았던 묘관음사의 향곡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향곡 선사가 대뜸 묻기를, "바른 답을 해도 30방(棒)을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棒)을 맞을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산승은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다시 몇 가지를 물어도 답을 못하니, 향곡 선사는 "아니다. 공부를 다시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제방을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다시금 큰 분심을 내어 향곡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화두를 타파하기 전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새집증후군·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상태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차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써,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제(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불삼 02)2004-8215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환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강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질2인쇄

현불삼 02)2004-8215



① 진제 스님의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의 법문은 미국 햄프셔대 교수 해인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동시 통역했다. ②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가 열린 리버사이드 교회 ③ 진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 법회 후 대중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에는 바탕을 지지 않았습니디. 아무리 팔풍(八風: 이익, 손해, 비방, 찬탄, 꾸지람, 칭찬, 괴로움, 즐거움)이 불어 닥친다 해도 거기에 동요가 안 된다는 말이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조가 아닙니다.”

향곡 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진리의 관문을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강경을 드리니, 산승의 참학의지(參學意旨)를 간파하시고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라는 화두를 내려주셨습니다. ‘향엄상수화’는 중국 당나라 때 위산 도인의 제자인 향엄 선사의 법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거나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만 물고 매달려 있는데, 때마침 나무 밑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려니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몸이 박살이 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이러한 때를 당해서 어찌해야 되겠는가?”

산승은 이 화두를 받아서 2년 5개월 동안 결계와 해제를 잊고 산문을 나가지 않은 채 일구월심 화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러가는데, 도량이 어두워서 돌부리에 발혀 넘어졌다 일어나는 순간 홀연히 화두가 타파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은 경지를 글로 써서 향곡 선사께 올렸습니다.

글을 적어서 향곡 선사께 갖다 바치니 용의 조화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용의 조화는 산을 떠오기도 하고 산을 없애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문득 용 잡아먹는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는고?”

산승은 즉시 “전신을 굽히고 움츠러가지고 당황하여 몸을 세 걸음 물러갑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향곡선사는 “옳고, 옳다. 모든 성인의 진리의 가풍이 이 계승 중에 다 있구나. 장차 너로 인해 참선법이 크게 흥하리라.”라고 말하며 만 사람을 지도할 안목을 갖췄다는 법을 전하는 인증서를 내렸습니다.

이 때가 산승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이렇게 참선 공부를 해서 진리를 깨달아 먼저 깨달은 스승에게 인증을 받는 가풍이, 석가여래로부터 25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라는 이 화두를 타파해 점점을 받아 바른 눈을 갖출때만 사람의 눈을 멀지 않게 하고 진리의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때 전국의 발심한 스님네 30~40명이 양주 망월사에서 모여,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해 산문출입을 급한 뒤 생사(生死)를 때어놓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石友) 선사를 선택으로, 운봉(雲峰) 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입한 지 반 살림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반살림 법회날 조실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함이요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하니, 여기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의 참모습을 보려는고?”하고 멋진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운봉 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라고 명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성 조실스님은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고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러한 법석이 있고 30~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향곡 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당시에 용성 선사였다면,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고 한 답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점검하고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향곡 선사에게 바로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용성 선사가 아무 말 없이 내려간 것도 물론 잘한 것이지만, 향곡 선사는 달리 보는 바가 있어 산승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눈 밝은 도인이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답하니, 향곡 선사가 크게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 여러분, “나의 참모습은 과거 모든 성인도 보지 못하고 모든 도인도 보지 못하니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할 자가 있으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양구(良久)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음을 이르시기를]

답하는 이가 없으니 산승이 대신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디. “시자야! 빗장을 잠그거라.”

아시겠습니까?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떠한 것이고?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니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라. 산봉우리에 구름이 걸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디.

왓 이스 유어 츠루 셸프?(What is your true self: 무엇이 참나이고?)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하좌하시디]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뗏목의 비유

산을 오르다 보면 온갖 시름이 떨어진다. 마치 조락(凋落)의 나뭇잎과 흡사하다. 발 아래 낙엽은 절로 나고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뚝 솟은 저 바위는 원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스어로 원자는 ‘분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작은 입자가 에너지인 것이다. 바위에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에너지인 원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쪽의 원자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참나를 틈타 뿌리는 삶을 지탱하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다.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뉴스에 나올 정도이다. 그 무지개는 비구름 위로 떨어지는 태양 광선의 작용으로 형성되는데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모자라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는 완성이요, 모두를 있게 하는 기본이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별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다. 이별의 속성은 만남이요 재회이다. 다만 그 형태와 모양을 달리하여 다시 만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나뭇잎의 이별이 없이 새봄의 새싹의 재회가 있을 수는 없다.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불독고만 있다면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凍死)한 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작은 잎새의 이별은 재회를 연약하며 떠난다.

《남전대장경》 가운데 ‘사유경(舍由經)’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석존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가르침이다.

제자 가운데 독수리 잠기를 좋아하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나뭇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니타였다. 대중들이 그의 그릇된 소견을 고쳐 주려고 타일렀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이 말은 전해들은 석존은 조용히 아니타를 불러 타이른 후 대중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뗏목의 비유를 들어 말해주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 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군’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건너가 평화로운 땅에 이르렀다.

나그네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강을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그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마운 뗏목에 대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석존의 질문에 제자들은 하나 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스승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겠느냐. 그는 강을 건너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강을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어 놓고 이제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뗏목의 비유를 보며 교법(教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 있겠느냐.”

그렇다. 강을 건너게 해준 은혜가 뗏목에 있다 하여 그 뗏목을 메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뗏목을 메고 가면 무거운 뗏목의 무게로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리듯 뜻을 알았으면 집착을 말아야

에서 평화로운 땅에 도달 했지만 마침내 힘이 들어 뗏 발착도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집착을 버려로 ‘arati’ 라고 한다. 집착은 ‘화’이고 ‘번뇌’이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화 날 일도 없을 것이고 번뇌에 속박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아이로 만든다. 자연은 우리 낫전에 속박한다. 왜 그런 일로 집착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로 고민 하느냐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의 실체를 모르면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래(tathagata)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다.

나뭇잎은 일찍이 집착을 터득한 모양이다. 누군가가 아쉬워한다 해도 미련 없이 이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비련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위대한 선언이다. 산세도 이별을 습득하였다는 뜻이 가남 사나 짐 지지 귀는 석약이다.



미얀마 관광청 승인 (주)에스쿣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 ~ 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 (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락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